

曾侯乙鐘 銘文 異體字 考察

朴錫弘*

◁ 目次 ▷

- I. 머리말
 - II. 異體 현상 분석
 - III. 異體 현상의 원인
 - IV. 異體字의 문자적 지위
 - V. 맺음말
-

I. 머리말

1978년 4월 湖北省 博物館에 의해 同省 隨州市 서쪽 근교 擂鼓墩 부근에서 曾侯乙墓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었다. 曾侯乙墓 編鐘(이하 “중후율종”)은 여기에 매장되었던 15,404 점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禮器·武器·생활용품 등의 副葬品과 함께 발견되었다¹⁾. 중후율종은 현재 湖北省 博物館에 所藏 중인데, 19개의 紐鐘과 45개의 甬鐘, 1개의 鐃鐘 등 모두 65개로 완벽한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편종은 위에서 보았을 때 전체 길이가 10.83 m, 높이가 2.73m나 되는 기역 자 모양의 종 틀에 수직으로(紐鐘) 혹은 비스듬하게(甬鐘) 매달려 있다. 편종은 또한 上·中·下의 세 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3組 19개의 紐鐘, 중단에는 3組 33개의 甬鐘, 하단에는 2組 12개의 甬鐘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하단에는 鐃鐘 하나가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²⁾.

* 又松大學校 國際留學部 中國留學科 教授

1) 譚維四 〈曾侯乙墓의 發現·發掘與研究〉, 《江漢考古》 2000年 第1期, 84쪽.
2) 崔憲 〈曾侯乙編鐘律學研究〉, 《中國音樂學》 1994年 第1期, 40쪽.

중후울종의 器主는 戰國時代 초기 정치·문화적으로 楚國의 영향권 내에 있었던 曾國³⁾의 君主인 “乙”로 여겨진다. 중후울종과 함께 발견된 鼎·簠·戈⁴⁾ 등 모두 208점의 禮器 및 武器類 青銅器 상에 “曾侯乙”이라는 銘文이 쓰여 있는데, 대개의 청동기 명문에 “爵位+人名”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器主일 가능성이 높은 점과, 중후울종과 함께 발견된 鑄鐘에 曾侯乙을 위한 楚 惠王의 獻辭가 등장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중후울종의 器主가 曾侯乙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編鐘의 제작 시기는 출토된 부장품 중 編鐘과 함께 발견된 鑄鐘의 銘文 중 楚 惠王 56년에 이를 제작하였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어⁵⁾ 이에 근거하여 B.C.43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

중후울종의 銘文에서 보여지는 문자의 상형 정도는 이전 시기 금문에 비해 격감하였고 線條化의 정도 역시 매우 높다. 문자 형태의 筆勢나 風格 면에 있어 중후울종 하단부 편종에 나타난 문자는 물결의 흐름과 같은 유연한 필획을 아래로 유난히 길게 늘어 쓴 형태이다. 이는 曾國이 주변 大國인 楚國의 문화적 영향권 내에 있으면서⁷⁾, 춘추 중·후기부터 楚系文字를 중심으로 나타난

- 3) 중국 학계에서는 《左傳·桓公六年》 “漢東之國，隨爲大。隨張，必彘小國。小國靡，楚之利也。” 등과 같은 문헌 내용에 근거하여 曾國을 문헌상의 隨國이라 보는 설(李學勤〈曾國之謎〉, 《光明日報》 1978년 10월 4일자.)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隨國은 西周 초기부터 존재하였던 周의 同姓(姬) 제후국으로서, 春秋 시기에서부터 강력한 제후국이었던 楚國과 인접해 있으면서 정치·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隨國은 지금의 湖北省 隨州市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는 河南省 南陽市 근교 新野, 남쪽으로는 湖北省 安陸과 京山까지가 주요 세력권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중후울종의 발견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曾國이 문헌상의 隨國이라는 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4) 鼎에는 “曾侯乙詐(作)時(時), 甬(用)冬(終).”과 같이 모두 7자의 명문이 네 행으로 쓰여져 있다. 簠 및 그 뚜껑에도 명문의 문자 사용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2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戈에는 “曾侯乙之腹戈.”라 쓰여있는 등, 모두 “曾侯乙”이란 器主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 5) “隹(唯)王五十又六祀返自西鄒(陽), 楚王畷(熊)章乍(作)曾侯乙宗彝”
- 6) 제작 동기로는 楚 惠王의 父王인 昭王이 B.C.506년에 吳國의 孫武·伍子胥의 공격을 피해 隨國으로 피신하였을 때 曾侯乙의 先祖가 그를 지켜주었는데(《左傳·定公四年》), 惠王은 이에 대해 父王 당시 隨國 君主의 후손인 曾侯乙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 것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 7) 曾國 청동기는 春秋 초·중기에 여전히 中原 지역의 기물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춘추 후기의 鼎 등의 기물에서 楚나라의 청동기와 비교적 많은 공통점을 이미 가지게 되었는데, 이 鼎을 예를 들어 볼 때 춘추 중·후기의 중국은 이미 초국과 문화적

문자의 예술화 추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문자학계에서는 중후올종의 문자를 戰國文字 중 초계문자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⁸⁾. 다만 중후올종의 문자는 초계문자에 유행하였던 鳥書나 蟲書 등과 같이 필획 중 일부에 새나 벌레와 같은 특정 동물의 형상을 덧붙이거나 획의 일부를 불룩하고 진하게 표현하는 문자의 裝飾化 경향은 띠고 있지 않다⁹⁾.

편종을 구성하는 각 종들 중 상단부의 紐鐘은 주로 音名을, 중·하단부의 甬鐘은 律名·階名·變化音名 및 曾國과 楚·周·晉 등 나라들과의 律名상 대응 관계를 기록하고 있다¹⁰⁾. 여기에서는 적게는 3자에서 많게는 90자의 문자가 각 鐘의 앞면 또는 뒷면에 주조되어 있다. 편종 전체에 쓰인 문자는 모두 2,828자에 달하고 있으며¹¹⁾, 중복되지 않는 單字는 모두 96자이다¹²⁾. 이들

측면에 있어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朱鳳瀚 《古代中國青銅器》 15쪽) 하지만 중국이 완전한 초국 문화의 附庸이라고 할 수는 없다. 曾侯乙墓의 매장 형식을 통해서도 이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楚墓가 모두 地面에서 아래도 비스듬하게 점점 파고 들어가는 “墓道”를 갖춘 형식이라는 것에 비해 曾侯乙墓는 墓道가 없이 지면에서 수직으로 파고 들어간 “豎穴坑”이라는 것이다 또한 楚墓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銅鏡이 없고, 또한 4,000여 점의 무기 들 중 劍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邵學海 《打開曾侯乙墓》 26쪽, 湖北美術出版社). 이를 통해 曾國이 楚國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북방에서부터 남하하여 내려온 제후국이라는 근원적 문제로 인해 楚國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 형태가 존재하였을 것이라 추정을 할 수 있다.

- 8)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135쪽, 中華書局, 1989.
- 9) 중후올종과 함께 발견된 戟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획의 일부가 불룩한 형태의 전형적인 초계문자의 특성을 띠고 있다.
- 10) 예를 들어 각 나라별 律名으로는 曾國의 “羸(羸)·大族(族), 楚國의 “呂鐘·穆音·濁文王”, 晉國의 “六(常)壙”·“繁鐘”, 周의 “刺(厲)音” 등이 있다. 또한 각각 律名의 대응관계를 나타낸 것으로는 曾·楚의 “割(姑)肆(洗)”, 曾·周의 “雁(應)音” 등이 있다.(崔憲 《曾侯乙編鐘銘文釋(上)》, 《音樂研究》 1994年 第64期, 58-59쪽.)
- 11) 중후올종을 설치한 종 틀에 쓰여진 문자까지 합치면 명문은 모두 3,755자에 이른다.(譚維四 《曾侯乙墓》 121쪽, 文物出版社, 2001.)
- 12) 중후올종에 출현하는 單字들은, 加角 馱(缺) 鼓(鼓) 宣(宣) 宮(歸) 淵(歸) 其元(其) 大(太) 冬(終) 呂六 韋(洗) 肆(洗) 羸(羸) 文 穆 誰(穆) 無反 鐘 繁(反) 訕(變) 顧(顧) 夫(太) 符(附) 駟(賓) 寺(持) 時(持) 乍(夔) 嗣(嗣) 商 亘(宣) 宣 亘(宣) 少 素 巽 獸 榭(新) 雙(申) 王 於 濱(衍) 欵(衍) 甬(用) 壙(壙) 壙(壙) 卩(羽) 東 洎(宣) 爲 乙 音 龔(龔) 雁(應) 廷(夷) 倅(夷) 倅(夷) 刺(厲) 才(在) 齊 鄒(齊) 族(族) 鐘 終 周 中 曾 之 晉 楚 皇(徽) 則 妥(蔡) 濁 翠(鐸) 鐸 坂(反) 坪 下 割(姑) 劓(姑) 号(號) 皇 隄(皇) 黃 侯 喜(鼓) 등이다.

중 다른 청동기 명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로써 “뿔”을 편방으로 취한 “𠄎”·“𠄏”·“𠄐” 등의 문자가 있다. 이들 글자들은 원래의 “穆”·“歸”·“兪” 등의 글자에 편방 “뿔”을 부가함으로써 문자 구조상 形聲字이다. 이러한 점은 증후울종이 제례 의식에 쓰였던 중요 악기였던 만큼 음악과 관련한 편방 “뿔”을 보탬으로써 해당 음률이나 음명이라는 의미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증후울종 명문들 중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청동기 명문 중 도태되지 않고 비교적 널리 쓰였던 문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있다. “濁”·“号(號)”·“珈”·“皐(徽)” 등이 그 예인데, 다만, “濁”의 경우 편방으로 쓰인 “濁”은 다른 청동기에서의 先例가 있으나 “水”를 義符로 하는 문자는 증후울종 명문이 유일하다. 또한 증후울종 문자들 중 다른 청동기에도 등장하는 문자이지만 비교적 후기에 처음 출현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寺”·“坪”·“巽”·“隄” 등이 그 예이다. 이 중 특히 “寺”의 경우는 기존의 고문자들이나 증후울종과 시기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명문에서는 “寺”자의 아래 점에 해당하는 지사부호가 부가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증후울종의 일부 형태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증후울종은 前述한 바와 같이 기물의 규모 면에 있어서도 대형이며 이에 수록한 문자 자료 역시 방대하다. 또한 제작 시기가 분명하여 금문 斷代 연구에 있어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戰國時代 초기 문자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자 자료인 것이다. 특히 동일 문자가 鑄을 달리 하며 여러 번 출현하는 각종 異體字들은 당시의 다양한 문자 이체 현상과 함께 俗體로 추정되는 자형들도 다수 눈에 띄고 있다. 그런데 1978년 최초 발굴 이후부터 中國 국내외에서 발표된 420여 편¹³⁾의 관련 논문 및 저작들 대부분은 考古·歷史·音樂 관련 연구에 치중해 있고, 문자 관련 논문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考釋이나 銘文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증후울종 내부에 나타난 다양한 문자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전국시대 이체자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에 있어 다른 지역문자와의 비교대상으로서만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증후울종에 수록된 2,828자의 명문을 대상으로 하여, 증후울종에

13) 吳治平 〈98中國隨州會侯乙編鐘國際學術研討會綜述〉, 《湖北社會科學》 1998년 第8期, 33쪽.

수록된 문자에 대한 기존 考釋과 문자학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의 증후율종 연구에서 있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증후율종 명문 내부의 異體 현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戰國文字의 寶庫라 할 수 있는 증후율종 문자 연구에 一助하고자 한다.

II. 異體 현상 분석

증후율종의 명문에서 쓰인 동일 單字들이 다른 위치에서 쓰일 때 그 대부분은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서로 크고 작은 형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문자의 구조적 측면이나 편방의 변화가 없이 필획상의 차이만을 보이는 각 문자간의 異體 현상은 증후율종 명문 전체에서 나타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후율종은 전국시기의 청동기 중 보기 드물게 2,828자라는 많은 銘文이 편종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종들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당시 曾國의 문자 異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문자 자료인 것이다¹⁴⁾.

제례의식 등 엄숙한 상황에 사용하는 樂器에 쓰인 명문에서 많은 이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西周 초기부터 춘추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청동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전국시기 문자의 이체 현상이 매우 심화되었음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筆劃 상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글자들은 명문 전체 자형의 비교를 통해서도 상당수의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종 내부에서도 보인다(부록, “曾侯乙鐘 銘文 異體字 總表” 참조). 증후율종 문자 내부에 있어서의 이체 현상은, 어떤 자형이 正體의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문자 통일 이전 전국시기의 다양한 문자 형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문자 자료인 것이다. 이들 이체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4) 역사적으로 전래되거나 현대에 발굴된 편종들 중 다수는 西周와 춘추 시기의 것들이다. 전국시대의 편종이 전체 편종 중 21.6% 정도이지만 다량의 명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증후율종을 제외하고는 소수에 불과하다.(陳雙新 <兩周青銅樂器銘辭研究> 75쪽, 河北大學出版社, 2002.)

15) 본문 내에서 열거한 증후율종 명문 자형과 부록에서의 명문 자형은 모두 中國社會科學

(1) 비율이 다른 자형으로 인한 이체 현상

중후울종에서는 동일 글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쓰였을 때, 글자 전체의 크기와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른 형태의 글자가 다량 발견된다. 중후울종의 명문은 특히 上·中·下 세 단에 매달려 있는 종의 크기에 따라¹⁶⁾ 그 자형 역시 서로 다른 현상을 보인다. 즉, 하단부의 甬鐘들과 鐃鐘의 명문 자형은 유난히 세로로 긴 형태로서 그 필체 역시 유려하고 단정하다. 이에 비해 중단부의 종부터는 전체 자형이 하단부의 자형에 비해 가로로 다소 넓어진 형태를 띠기 시작하며, 상단부에서는 가로 세로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정방형의 형태에 가깝다.

隸定	獸		商		濁		皇		晉		其	
字形												
位置	下2·10 背·中	中2·10 背·中	下1·1 背·中	中2·3 正·中	下1·1 背·中	中1·5 背·中	下2·7 背·左	中1·4 背·右	下2·2 背·左	中3·1 背·右	下2·2 背·中	中3·3 背·中
隸定	角			學			牌			黃		
字形												
位置	下1·1 背·右	中1·2 正·中	上2·1 正·左	下1·1 背·左	中2·8 正·中	上2·2 正·中	下2·7 背·左	中3·1 背·中	上2·5 背·中	下1·3 背·右	中3·5 背·中	上2·6 背·中

(2) 필획의 연결 및 분리의 공존

필획의 연결이나 끊어진 것의 여부는 부식이 될 수 있는 금속의 변질 가능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중후울종에서는 이런 소지가 분명히 없는 자형들 중에서 필획의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乍”의 경우는 문자를 구성하는 필획이 상호 교차되어 이어진

院考古研究所의 <殷周金文集成>(수록 일련번호 2.286~2.349)과 上海博物館商周青銅器銘文選編寫組의 <商周青銅器銘文選>(第2卷, 수록 일련번호 705-768) 명문에 근거하여 필자가 摹寫한 것이다. 또한 해당 문자가 출현하는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기 위하여 上記 <商周青銅器銘文選>의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이를 표기하였다.

16) 상단부의 紐鐘은 39.9~20.2mm, 중·하단부의 甬鐘은 152.3~37.2mm이다.(劉彬徽 <楚系青銅器研究> 232쪽, 湖北教育出版社, 1995.)

형태가 있다(下1·2/正·中). 또 “妥”의 경우는 필획 전체가 相接하여 마치 하나의 다른 편방인 것처럼 쓰기도 하였으며(中3·7/背·中), “皇”은 각 편방이 서로 이격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下1·3/背·右, 中3·3/背·右).

隸定	會		侯		乍				櫛		皇		
字形													
位置	下1·2 正·中	中1·8 背·中	下2·2 正·中	下2·7 正·中	下1·1 正·中	下1·2 正·中	下1·10 正·中	中2·3 正·中	中2·3 正·中	下2·7 背·中	中1·6 背·左	下1·2 背·中	下1·3 背·右
隸定	皇		妥		才		字		𠄎				
字形													
位置	中3·3 背·右	中3·8 背·右	下1·2 背·中	中3·7 背·中	中3·7 背·中	下1·2 背·中	下2·5 背·中	中3·2 背·中	中3·6 背·右	中3·10 背·右	下1·2 背·右	中3·4 背·左	中3·6 背·中

(3) 일부 필획의 생략

일부 자형에서는 비교적 복잡한 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의 해당 필획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자형이 필획이 통일되지 않은 증후유종의 문자 현상을 볼 때 이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侯”·“冬”·“實”·“楚”·“妥”·“於” 등의 字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짧은 가로획을 생략하거나 각 편방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필획을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은 서사상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隸定	侯		冬		字		妥		實		於		楚	
字形														
位置	中1·7 正·中	中3·3 正·中	中1·3 背·左	中2·3 背·左	下1·3 背·中	下2·2 背·中	下2·1 背·左	下2·5 背·中	下1·2 背·中	下2·1 背·左	下1·3 背·左	中3·7 背·左	下1·2 背·中	下2·4 背·中

(4) 문자 방향의 변화

고문자 단계에서 금문은 갑골문에 비해 문자 방향의 변화 현상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증후유종 명문 중 다수는 여전히 문자의 방향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

다. 중후올종에서의 문자 방향은 주로 左向과 右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류의 글자 대부분은 주로 중단부에 설치된 종에서 보인다¹⁷⁾. 아래 표에서는 해당 글자 좌측의 자형이 중후올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자형이고, 오른쪽의 것은 이와 방향을 달리하는 이체자이다.

隸定	坪		才		号		角		𠂔		𠂔		巽	
字形														
位置	下1·1 背·右	中2·1 背·右	下1·2 背·中	中2·1 背·中	下2·3 背·中	中3·5 背·右	下1·1 背·右	中2·1 正·中	下1·1 背·左	中1·1 正·中	下1·2 背·中	下2·2 背·左	中1·4 背·左	中1·6 背·左

(5) 장식부호의 첨가

장식부호는 문자를 구성하는 편방과는 달리, 의미나 발음에 있어 전혀 상관이 없이 문자에 부가되는 일종의 특수부호이다¹⁸⁾. 複筆의 장식부호가 부가된 자형은 “𠂔(關)”자가 유일하다. “𠂔”자는 “𠂔”(下2·3/背·右)와 같이 원래의 문자 좌측 아래부분에 특정의 장식부호를 첨가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𠂔”자가 “𠂔”(下2·8/背·右) 등의 형태를 취한 것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 字의 경우에는 “𠂔”(中3·10/背·右)와 같이 장식부호가 상호 호환되는 형상이 보이기도 한다. 單筆의 장식부호가 나타나는 字로는 “𠂔(新)”·“下”·“才(在)” 등이 있는데, 원래 자형의 윗부분에 짧은 가로획이 첨가되는 형태이다. 장식부호의 추가 현상은 자형상의 빈 공간을 채워 자형상의 균형미와 문자 형태상의 조밀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¹⁹⁾, 세로로 길이가 긴 자형의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데 중후올종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17) 편종 문자 외에도 會侯乙鼎의 일부 문자에서는 중후올종과는 달리 上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체자가 있기도 하다. “𠂔”의 중후올종 문자 “𠂔”(下1·2/正·中)가 會侯乙鼎에서는 “𠂔”의 형태로 쓰인 것이 그 예이다.

18)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229쪽, 中華書局, 1989.

19) 이러한 장식부호의 첨가 현상은 楚系文字에서 자주 보인다. 예를 들어 “𠂔(正·楚羸區)”·“𠂔(上·包贖1反上)”·“𠂔(下·僭1·25)”·“𠂔(兮·包2·87)”·“𠂔(石·包2·80)”·“𠂔(石·包2·203)”·“𠂔(不·包2·126)”·“𠂔(不·2·155)” 등이 있는데, 짧은 가로획의 첨가 위치는 해당 문자의 상단·중간·하단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특히 “石”과 “下”의 경우에는 상단과 중간에 모두 장식성의 가로획이 부가되어 있는 이체 형식이다.

隸定	𠂔			𠂔		下		才		
字形										
位置	下2·2 背·中	下2·3 背·右	中3·10 背·右	下2·7 背·中	下2·10 背·右	下1·1 背·右	下1·2 背·左	下1·2 背·中	中3·3 背·中	中3·1 背·左

(6) 편방의 간략화

중후을종 문자 상호간에는 동일 편방이면서 이것의 자형을 일부 생략하거나 필획을 간소화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문자의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음과 의미 변화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중 특히 “濁”의 경우에는 편방 “虫”이 십자 형태의 가로 세로 획이 교차되는 형식의 부호로서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었고, “𠂔”과 “楚”의 경우는 편방 “木”이 세 개의 짧은 직선의 획이 서로 교차하는 형식으로 썼다. “濁”과 “楚”의 이러한 형태는 중·상단부 종의 문자에서만 나타나며, 하단부의 문자에서는 변화가 없다. 나머지 문자들 역시 편방을 간략화 한 형태는 대체로 중·상단부 종에서 발견된다.

隸定	獸		濁		𠂔		楚		皇		鐸		角	
字形														
位置	下1·3 背·中	中2·9 背·右	下1·1 背·中	中1·5 背·右	下2·5 背·右	中1·5 背·左	下1·2 背·中	中2·11 背·中	下2·4 背·中	中1·4 背·右	下1·2 背·中	上3·7 背·中	下1·3 背·右	中3·6 背·中

(7) 偏旁的 互換

중후을종에서는 “兂”과 “先”, “𠂔”과 “匚”, “兂·彳·人” 등의 편방이 해당 글자의 의미와 발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互換되고 있다. 예를 들어, “兂”과 “先”은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인해 호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후을종에서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서로 떨어진 몇 개의 선으로 표현된 “先”의 형태가 서사상 더욱 용이하므로 편방 “先”으로써 “兂”를 대체한 것으로 여겨진다. “𠂔”과 “匚”는 모두 집이나 특정 장소의 범위를 나타내는 의미요소로서 고문자에서 자주 호환된 경우가 많은데 중후을종에서도 이

와 같은 예이다. 또한 “走”과 “彳”·“人”에 있어서 “走”과 “彳”은 “止”의 부가 여부에 따른 편방의 차이가 있지만, 각종 고문자에서는 이들 모두 걷는 행위와 관련한 문자에 있어서 서로 호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증후울종에서도 이와 같은 호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彳”과 “人”이 호환되는 경우에서는 각각 길과 사람을 나타내는 편방으로서 의미하는 원래의 뜻은 서로 다르지만 형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호환하여 쓴 것으로 보여진다.

隸定	辟-肄		宜-亘		達-倅-倅			羸		癩-譌	
字形											
位置	下1:1 背·中	中1:9 背·右	下2:5 背·中	中3:5 背·右	下1:2 背·中	下1:3 背·右	中3:3 背·左	下2:2 背·中	下2:3 背·右	下2:9 正·中	下1:2 背·中

이들 편방의 호환에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증후울종 하단부의 해당 문자들이 서 중단부에서 쓰일 경우에는 하단부의 특정 편방을 다른 편방으로 대체하여 썼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단부에서는 모두 “先”과 “匸” 등을 취한 문자가 출현하거나 “人”을 편방으로 취한 자형은 중단부에서만 나타난다.

(8) 편방 위치의 변화

증후울종 문자에서의 편방 위치 변화는 각 편방 전체가 좌우간 또는 상하간 변화가 있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상하간의 편방 위치 변화로서는 “獸”·“鑄”·“濁” 등이 있으며, 상하간의 변화로서는 “鑄”이 있다. 이밖에도 일부 문자에서는 한쪽 편방 내부에서 상하 변화가 있는 것이 있는데 “珈”가 그 예이다.

隸定	獸			鑄		鑄		濁		珈	
字形											
位置	下1:1 背·右	下1:1 背·中	中3:1 背·中	下1:3 背·中	中3:1 背·中	下2:9 正·中	下2:9 背·中	下1:1 背·中	中1:3 背·右	下1:2 背·中	下2:4 背·中

(9) 偏旁의 省略

중후울종의 일부 문자들은 특정 편방이 생략되어 쓰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徵)”은 편방 “口”를 생략하고, “濁”은 “虫”을 생략하였으며, “譌(譌)”에서는 편방으로 쓰인 “譌”의 일부인 “止”를 생략하였다. 그런데, “譌”를 제외한 “□·濁”의 편방 생략 현상은 하단부에 수록된 명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모두 중단부에서 보인다.

隸定	徵	濁	譌
字形			
位置	下1-2 背-中	中1-9 正-右	中1-3 背-右

(10) 形聲化로 인한 이체자

중후울종 문자에서는 기존의 문자에 편방을 추가하여 문자 구조상 形聲字로서 다른 문자와 이체 관계를 형성하는 예들이 다수 보인다. 편방 중에서는 특히 義符를 첨가하여 이체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있는데 “罍-罍”·“割-割” 등이 그 예로서, 기존의 문자에 “金”·“竹”을 추가한 문자와 그렇지 아니한 문자가 중후울종 내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다. 전국 초기는 형성자가 대량으로 증가하던 시기로서, 중후울종의 이체자에도 이러한 문자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隸定	罍-罍	割-割
字形		
位置	下2-1 背-右	下1-2 背-中

Ⅲ. 異體 現象의 원인

이체 현상의 분석 결과, 중후울종에서의 다양한 이체 현상은 명문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편종 전체 중 중단부 또는 상단부의 문자들

이 하단부의 문자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상단부의 문자들은 하단부의 문자들에 비해 필획이 격감되어 형체적으로 簡化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隸定	徵		皇		角		濁		肩		大	
字形												
位置	F1-1 正右	中1-4 背右	F1-2 背中	中1-4 背中	T1-3 背中	中3-6 背中	T1-1 背中	中1-11 背中	F1-2 背右	中3-5 背左	F1-2 背中	上3-6 背中

중후올중에서 이처럼 편종이 배열된 각 단별로 형체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먼저 서사 재료로 쓰인 종의 크기가 각 단별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들 수 있다²⁰⁾. 하단부에 배열된 종은 상단부나 중단부의 종에 비해 그 크기가 커서 문자의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에 따라 해당 문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필획을 비교적 정확히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단부와 상단부는 하단부에 비해 복잡한 필획의 문자를 쓰기에는 다소 좁아 간단한 필획의 문자가 서사에 더욱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西周 시기의 소형 청동기에서도 복잡한 필획의 문자가 주조되어 쓰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사 재료의 크기 차이만이 이체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편종의 각 단별로 형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서사 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楚國문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曾國에서 유행한 간화된 형체의 문자가 편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다음 장 “도표” 참조). 또한 하단부의 일부 문자들에 있어서도 다른 청동기 명문과 형체상 차이를 보이는 이유 역시 바로 이러한 서사의 편의성을 추구한 결과의 반영인 것이다²¹⁾.

20) 주 16) 참조.

21) 편종 명문 전반에 걸쳐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侯”자를 예로 들자면, 전국시기 이전 금문의 “侯”자에서 화살을 상형한 “矢”의 중간 부분이 점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중후올중에서는 일률적으로 가로획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화살을 상형한 “矢”자 중 뾰족한 화살촉을 나타낸 상단 첨단 부위가 중후올중에서는 모두 일률적으로 가로획으로 바뀌어 쓰고 있다. “矢”를 편방으로 취하고 있는 “族”자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

IV. 異體字의 문자적 지위

문자의 번잡한 필획이 간략화되고 부호화되는 것은 한자 형체 변화 발전에 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번잡한 필획의 繁體가 실제 문자 사용에 있어 서사의 편의성에 역행한다하더라도 일시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간화된 형식의 字體와 함께 오랜 동안 공존하면서 변체는 정체로서, 간체는 속체로서의 문자적 지위를 가진다. 특히 금문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해당 시기의 대표적 서체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금문은 前代의 문자적 전통을 유지하며 정체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지속했다²²⁾.

서주·춘추 시기의 청동기 중 禮器나 樂器 명문은 이전 시기 문자의 형체와 구조를 오랜 시간동안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竹簡이나 帛書 등 다른 서사 재료에 쓰인 문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금문은 동일 시기 동일 지역의 문자라 하더라도 다른 서사 재료에 쓰인 문자 형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正體(standard form)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후올종 異體 현상의 분석 과정에서는 중후졸종 명문 내부에서는 이체자라는 문자 형태의 단순한 변이 형태를 띠는 것뿐만 아니라, 正體와 俗體(vulgar form)라는 문자적 지위가 구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도 다량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체 현상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문자 형체 통일 이전에 서사 편의를 위해 간화된 다양한 속체 형식이 중후올종의 명문 일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중후올종의 하단부 문자들 중에는 다양한 이체자들이 혼재하고 있어서 다수의 자형들 중 가장 표준이 되는 어떤 특징의 형태가 正體라 확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형체적으로 중·상단부에 비해 필획이나 구조가 복잡하고 이전 시기 명문과 형체적 연관성과 유사성이 상당히 높아서 당시 중국 문자 중의 正體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상단부의 문자는 당시 문자 사용인들

은 다른 청동기 명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2) 예를 들어 商代文字는 甲骨文으로 대표되어지지만 문자적 지위로 봤을 때는 商代 금문이 정체이며 갑골문은 이에 상대되는 속체인 셈이다. (裘錫圭 《文字學概要》 44쪽, 常務印書館, 1988.)

이 서사의 편의와 쓰기의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俗體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후올종에서 보여지는 중·상단부의 俗體는 이른바 “物勒工名”이 유행하였던 전국시기의 화폐·무기 등 실용기물 상의 서체보다는 형체나 구조면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하단부의 문자에 비해서는 필획·형체·구조면에서 간략화가 심화된 형태이다. 중후올종과 함께 발견된 戈의 명문 “𠄎(侯)”·“𠄎(廢)”·“𠄎(戈)” 등은 전국시대 중·후기 실용기물의 명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들 자형 역시 중후올종의 중·상단부 문자와 형체와 풍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중·상단부의 문자가 曾國 문자 중 실용기물에 자주 등장하였던 이들 문자들과 동일한 성질을 띠는 俗體였을 것이라든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正體와 俗體의 형체적 괴리는 실제 문자 사용인의 手寫 형식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중후올종 중·상단부 문자가 실제 쓰기에 적용되었던 속체였을 것이라든 가능성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동일 문자 계열인 초계문자에 속하는 竹簡文·帛書 등 다른 手寫 문자와의 형체 비교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²³⁾.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상·중단부 문자들의 간화 정도는 竹簡이나 帛書 등 手寫 문자 형체와 매우 유사하다.

隸定		𠄎	𠄎	商	大	角	無	妥	族	羸	音
曾侯乙鐘	하단부										
		F1-1 背·左	F1-1 背·中	F1-1 背·中	F1-2 背·中	F2-1 背·右	F1-2 背·中	F1-2 背·中	F2-2 背·左	F1-3 背·中	F1-2 背·右
楚系簡·帛文	상단부										
		上2·2 正·中	上3·3 背·中	上2·1 正·左	上3·6 背·中	上2·1 正·左	上3·7 背·中	上3·5 背·中	上3·6 背·中	上3·4 背·中	上3·3 背·中
		包2·128	包2·49	兩21·2	天卜	包2·86	天卜	望2·策	包2·3	常1	包2·203

23) 여기에서의 簡·帛文은 滕壬生の 《楚系簡帛文字編》에서 해당 자형을 취하였다.

이는 西周를 거치면서 春秋시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청동기 명문의 보수적 형체가 실제 쓰기의 형식으로 간화되어, 이러한 속체가 증후울종 편종 중·상단부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엄숙한 의식에 쓰였던 樂器에 이처럼 기존 전통 자형이 간화된 俗體 형식과 이전 시기 문자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복잡한 필획의 正體가 함께 혼재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청동기 銘文이 오랫동안 유지하였던 문자적 보수성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어 가는 중국 청동기 명문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금문에 대한 연구는 문자의 形·音·義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중 형체에 대한 연구는 실제 문자 자료를 통해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이다. 漢字는 생성 이후 변화 발전 과정 각 단계에서 특이한 형체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특정 시기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체의 문자 형체 비교는 한자 형체 변화·발전과 해당 시기 문자 특징을 기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은 증후울종에 수록된 2,828자의 명문들을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다양한 이체 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會國 청동기 명문의 문자적 특성과 그 지위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증후울종에 쓰여진 문자를 대상으로 이들 문자들 내부의 형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물 내부에서 상당수의 자형이 형체나 구조를 달리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이체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들은 편종의 특정 배열 위치에 따라 書寫 특징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단부와 중·상단부의 문자들은 각각 正體와 俗體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보수성을 띠는 문자 형태와 실제 문자 생활에 있어 사용되는 실용 서체가 증후울종 명문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편종에서 俗體가 正體와 함께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金文의 極盛期인 西周시기를 경과한 이후 중국 청동기 명문

은 전국시기에 접어들면서 실용 기물인 무기나 각종 화폐문자 등에 쓰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용 서체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고 발굴을 통해 얻은 중후올종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 연구 측면에서는 문자 고석에 있어서 이설이 분분한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보다 심도 깊은 문자의 고석과 戰國時代 초기 會國 문자 본연의 특징 연구, 주변 국가들 간의 문자 교류에 따른 문자 형태의 다양한 상호 연관 관계, 音韻 및 意味에 따른 자형상 특징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중후올종에 나타난 다양한 이체 현상과 俗體의 연구는 전국시대의 청동기 명문뿐만 아니라 죽간·백서문자 형태 연구에 있어서도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들 연구는 또한 전국시대의 한자가 隸書와 같은 이후의 실용서체로 변모하는 과정 탐구에 있어서도 실증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下1-2 靑左	下1-3 靑右	下2-3 靑右	中1-4 靑左	中1-4 靑中	中1-5 靑中	中2-1 靑中	中2-2 靑左	中2-4 靑左	中2-6 靑中	中2-12 靑中	中2-12 靑右	中3-6 靑中		中1-7 靑中	中1-8 靑中	中1-8 靑左			
						肄													
中1-9 靑中	中1-9 靑右	中1-11 靑左	中2-8 靑左	中2-8 靑中	中2-9 靑左		下1-1 靑中	下1-1 靑右	下1-3 靑右	下2-1 靑中	下2-3 靑右	下2-7 靑左	下2-8 靑右	中3-1 靑中	中3-1 靑右	中3-4 靑右			
	肄													濁					
上2-5 靑中		中1-4 靑左	中1-5 靑中	中1-6 靑中	中1-8 靑中	中1-9 靑右	中2-1 靑中	中2-1 靑左	中2-2 靑中	中2-3 靑中	中2-9 靑右	中2-10 靑左			下1-1 靑中	下2-9 靑中	下2-10 靑左		
中1-3 靑右	中1-4 靑中	中1-5 靑中	中1-5 靑右	中1-6 靑中	中1-9 靑右	中1-11 靑中	中2-2 靑右	中2-4 靑左	中2-5 靑右	中2-8 靑左	下1-1 靑中	下1-3 靑左	下2-5 靑右	下2-7 靑中	下2-10 靑右	中1-3 靑右			
中1-4 靑中	中1-4 靑左	中1-5 靑左	中1-6 靑右	中1-6 靑左	中1-9 靑中	中1-11 靑右	中2-2 靑左	中2-4 靑左	中2-6 靑右	中2-6 靑左		下1-1 靑右	下1-2 靑中	下1-3 靑中	下2-1 靑右	下2-1 靑右	下2-4 靑中		
											皇								
下2-7 靑左	中1-4 靑中	中1-8 靑右	中2-5 靑中	中2-6 靑中	中2-8 靑中	中2-9 靑右	中2-10 靑右	中3-1 靑中				下1-1 靑左	下1-1 靑右	下1-2 靑中	下1-3 靑右	下2-1 靑右	下2-3 靑右	下2-3 靑右	下2-4 靑中
																			文
下2-5 靑左	下2-7 靑左	下2-10 靑左	中1-3 靑左	中1-4 靑中	中1-4 靑右	中1-6 靑右	中1-7 靑中	中1-7 靑左	中1-9 靑右	中2-3 靑左	中2-8 靑中	中2-8 靑右	中2-12 靑中	中3-3 靑右	中3-8 靑右				
							下			安									
下1-1 靑右	下2-4 靑左	下2-8 靑左	下2-9 靑中	中1-5 靑右	中2-12 靑左			下1-1 靑右	下1-2 靑左		下1-2 靑中	下2-1 靑左	下2-2 靑左	下2-5 靑中	中3-4 靑中	中3-4 靑中	中3-4 靑中	中3-7 靑中	
中3-7 靑中	上3-5 靑中	下1-2 靑中	下1-2 靑中	下2-2 靑中	下2-5 靑中	中2-11 靑中	中2-11 靑中	中3-1 靑左	中3-3 靑中	中3-4 靑中		下1-2 靑中	下2-3 靑中	下2-4 靑中	下2-5 靑中	下2-5 靑中	下2-5 靑中	下2-5 靑中	下2-5 靑中
			則						族										
中3-3 靑中	中3-4 靑中	中3-5 靑右		下1-2 靑中	下1-3 靑右	下2-1 靑中	下2-4 靑中	中3-3 靑左		下1-2 靑中	下2-2 靑左	下2-4 靑中	中2-11 靑右	中3-6 靑右	中3-9 靑左	中3-10 靑中			
	珈				鐸														
上3-6 靑中		下1-2 靑中	下2-4 靑中	下2-8 靑中		下1-2 靑中	下2-1 靑右	下2-4 靑中	下2-4 靑右	下2-7 靑右	中3-5 靑中	中3-7 靑右	中3-9 靑左	上3-7 靑中					下1-3 靑中

											王	王	王	王	角	
F2-1 青中	F2-2 青中	F2-2 青中	F2-3 青右	F2-8 青右	中2-1 青中	中3-2 青中	中3-2 青中	中3-6 青右	中3-10 青右	上3-4 青中	F1-1 青右	中1-8 青右	中2-12 青左			F1-1 青右
														華		
F1-2 青左	F1-3 青中	F1-3 青右	F2-1 青右	中1-2 正中	中1-2 青中	中1-5 正中	中1-10 青右	中2-2 正中	中2-8 青中	中2-11 正中	中3-3 青中	中3-6 青中	上2-1 正左		F1-1 青左	F1-2 正右
									黃							
中1-1 正中	中1-1 青中	中1-8 青中	中2-8 正右	中2-8 正中	中2-9 青中	中3-1 正中	中3-6 青左	上2-2 正中		F1-2 青中	F1-2 青中	F2-1 青左	F2-2 青左	F2-4 青中	F2-4 青右	F2-5 青中
			楚						齊		周					
中3-4 青中	中3-5 青中	中3-7 青中		F1-2 青右	F2-2 青右	F2-4 青中	中2-11 青中	中3-3 青中		F2-2 青中		F2-2 青右	F2-3 青左	中2-11 青左	中3-1 青右	
F2-2 青左	F2-5 青中	F2-11 青右	中3-1 青左	中3-1 青右	中3-8 青中		F1-2 青中	F2-4 青中	中3-4 青中	中3-7 青中		中2-11 青中	中3-2 青中		F1-2 青中	F1-2 青中
F1-2 青右	F1-2 青左	F1-3 青左	F2-1 青右	F2-3 青左	中2-11 青右	中2-11 青中	中2-11 青左	中3-1 青左	中3-1 青左	中3-1 青中	中3-1 青中	中3-2 青左	中3-3 青右	中3-3 青中	中3-4 青左	中3-4 青左
								其					元			注
中3-5 青右	中3-6 青中	中3-6 青左	中3-6 青左	中3-7 青中	中3-7 青左	中3-8 青中	中3-9 青右		F1-2 青中	F2-2 青中	F2-2 青左	F2-5 青中	中3-2 青中	中3-3 青中	中3-5 青右	
								倅					倅		大	
F1-2 青中	F2-2 青中	F2-7 青中	中3-4 青中	中3-4 青左	中3-7 青中	中3-8 青右	中3-10 青中		F1-3 青右	F2-1 青中	F2-4 青左	F2-5 青左		中3-3 青左		F1-2 青中
	夫			調				無							黃	
上3-6 青中		中2-11 青中	中3-10 青中		F1-2 青中	F2-4 青中	F2-5 青中		F1-2 青中	F2-4 青中	中3-5 青中	中3-7 青中	中3-9 青左	上3-7 青中		F1-2 青中
							餅									
F1-3 青右	F2-4 青中	F2-5 青中	F2-5 青左	F2-8 青左	中3-5 青中	上2-6 青中		F1-3 青右	F1-3 青中	F2-1 青中	F2-1 青左	F2-3 青中	F2-4 青左	F2-8 青左	中3-4 青左	中3-5 青左
															欄	
中3-5 青左	中3-6 青右	中3-7 青左	中3-10 青左		F1-2 青右	F2-3 青中	F2-3 青右	中3-3 青中	中3-3 青左	中3-4 青左	中3-5 青左	中3-6 青中	中3-6 青左	中3-7 青左		F1-2 青右

【參考書目】

- 裘錫圭 《文字學概要》，常務印書館，1988。
- 譚維四 〈曾侯乙墓的發現、發掘與研究〉，《江漢考古》2000年 第1期。
- 譚維四 《曾侯乙墓》，文物出版社，2001。
- 滕壬生 《楚系簡帛文字編》，湖北教育出版社，1995。
- 上海博物館 商周青銅器銘文選 編寫組 《商周青銅器銘文選》，文物出版社，1990。
- 邵學海 《打開曾侯乙墓》，湖北美術出版社，2003。
- 吳治平 〈'98中國隨州曾侯乙編鐘國際學術研討會綜述〉，《湖北社會科學》1998年 第8期。
- 劉彬徽 《楚系青銅器研究》，湖北教育出版社，1995。
- 朱鳳瀚 《古代中國青銅器》，南開大學出版社，1995。
-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殷周金文集成》(第2冊)，文物出版社，1985。
- 陳雙新 《兩周青銅樂器銘辭研究》，河北大學出版社，2002。
- 陳應時 〈曾侯乙鐘磬銘文疑難字釋義述評〉，《音樂藝術》2002年 第3期。
- 崔 憲 〈曾侯乙編鐘律學研究〉，《中國音樂學》1994年 第1期。
- 何琳儀 《戰國文字通論》，中華書局，1989。

【中文提要】

一九七八年曾侯乙鐘發現於湖北省隨州市郊區擂鼓墩。迄今發表的有關論文及著作已達四百二十多篇。這些文章主要着重於歷史、考古、音樂、文化等方面的研究，和它們相比，除幾篇考釋文字、注解銘文的文章之外，分析曾侯乙鐘所收銘文的文字現象的專著并不太多。因此本文主要分析曾侯乙鐘所收兩千八百二十八個字裏邊的具體現象，并說明曾侯乙鐘異體字的文字地位。

戰國時期的文字多包括各種各樣的異體字，異體字一般具有俗體的性質。俗體在整個古文字階段出現，曾侯乙鐘銘文也不例外。曾侯乙鐘銘文的異體字主要出現在編鐘上部和中部的紐鐘銘文裏。通過這次分析研究發現，這些異體字字體與當時手寫的簡帛文相似，筆劃簡單，偏旁省略，線條化和平直化已經達到後期近代文字的程度。這證明在戰國初期的青銅禮

器上已經出現大量的俗體字，也證明戰國初期簡體的俗體字在書寫時已經廣泛使用。它充分反映了漢字形體結構從繁體正體到俗體的演變過程。

【主題語】

曾侯乙 銘文 金文 異體字 戰國文字